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고] G20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며

나렌드라 모디인도 총리

입력 2022.12.01 05:00



/인도 총리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오늘, 인도는 G20 의장국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G20 의장국을 맡은 17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 보장,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 부채 상환 부담 경감을 포함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인도는 이를 바탕으로 더더욱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인도가 이토록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G20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전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가?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형성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핍의 역사였습니다. 자원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은 곧 나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었기에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사상, 이데올로기, 정체성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이 우리 시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인류는 여전히 제로섬에 기반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간 영토 분쟁, 자원 분쟁에서 이를 봅니다. 필수품의 공급을 무기로 삼는 것에서 이를 보

다. 수십억 명이 질병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소수가 백신을 독점하는 것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봅니다.

대립과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실로 이기적인 존재라면, 그토록 많은 영적 전통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점을 어찌 그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에 널리 퍼진 그러한 전통 중 하나는 타트바(panch tatva)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 심지어 무생물도 땅, 물, 불, 바람, 허공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러한 요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체·사회·환경에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G20 의장국 인도는 인류가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를 반영한 G20 주제를 소개합니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인류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최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인류에게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 수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시대는 투쟁의 시대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로, 투쟁의 시대가 되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인 기후 변화, 테러리즘, 팬데믹은 서로 간의 투쟁이 아니라 오직 서로 간의 협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대의 기술 역시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가상 세계는 디지털 기술의 확장성을 잘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언어, 종교, 관습과 신앙이 있는 인도는 우리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집단의사결정의 전통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민적 합의는 강권에 의한 것이 아닌 수백만 명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조화롭게 녹아든 결과입니다. 인도는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인도의 시민 중심 거버넌스 모델은 재능 있는 청년들의 창의적 천재성을 길러주며, 가장 소외된 시민 한 명까지 보듬어줍니다. 우리는 하향식 거버넌스를 통해서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국민의 운동’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호 운용적인 디지털 공공재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보장, 금융 포용, 전자 결제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의 경험은 세계적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G20 의장국 임기 동안 다른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인도의 경험, 교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길을 걷지만 종종 도외시되는 남반구의 저개발국과도 협의하여 G20 최우선 과제를 설정하겠습니다. ‘하나의 지구’를 치유하고, ‘하나의 가족’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의 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치유하기 위하여,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도의 전통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장려할 것입니다.

인류라는 한 가족 내 조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식량, 비료, 의료제품 세계 공급의 탈정치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정학적 긴장이 인도주의적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위협을 완화하고 세계 안보 강화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열강 간의 진솔한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야심 차고, 행동 중심적이며, 결단력 있는 G20 의제를 제시하겠습니다. G20 의장국 인도가 임기 동안 치유와 조화, 희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인간 중심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